

보도	2025.2.24.(월) 14:00	배포	2025.2.24.(월)				
담당부서	자금세탁방지실 자금세탁방지검사2팀	책임자	실 장	김지웅	(02-3145-7500)		
		담당자	팀 장	홍수형	(02-3145-7495)		

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업권별 릴레이 「자금세탁방지 워크숍」 개최

< 주요 내용 >

- ◆ 금융감독원은 '25.2.24.(월) ~ 2.28.(금) [5일] 기간 중 총 7회에 걸쳐 금융업권별 릴레이 「자금세탁방지(AML) 워크숍」을 개최
 - 은행, 증권 등 주요업권 AML 업무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 워크숍을 진행하며, 현장 참여가 어려운 소규모 금융회사를 위해 온라인 방식(1회)을 병행

구 분	2.24.(월)	2.25.(화)	2.26.(수)	2.27.(목)		2.28.(금)	
대 상	은행	증권	여전	전자금융	생·손보	저축은행	대부·P2P· 소규모 전자금융 등
시 간	14:00~ 15:30	14:00~ 15:30	14:00~ 15:30	10:00~ 11:30	15:00~ 16:30	14:00~ 15:30	10:00~ 11:30

- ◆ 이번 워크숍은 금융회사의 실질적인 AML 업무역량 제고를 위해 업권별 주요 AML 업무 운영 및 개선사례를 발표하는 등 **금융회사 참여형**으로 진행
 - (금감원) 최근 검사결과 주요 지적사례 등을 안내하고, 특히 보이스피싱, 도박·마약 등 민생 금융범죄 예방을 위해 자금세탁 위험관리 강화*를 당부
 - * AML·소비자보호 부서 간 업무연계를 통해 사기이용계좌 등 금융범죄 관련 정보를 고객 위험평가 및 의심거래보고 등에 활용
 - (금융회사) 머신러닝,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체계 고도화 등 주요 AML 업무 운영 및 개선사례를 발표
- ◆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금융업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금융회사 스스로 자금세탁 위험에 기반한(RBA*) AML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
 - * Risk-Based Approach : 금융권역·금융회사·고객·상품·업무 등에 내재된 자금세탁위험을 식별·평가하여 부문별 위험수준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

- 금융감독원은 '25.2.24.(월) ~ 2.28.(금) [5일] 기간 중 총 7회에 걸쳐 금융업권별 릴레이 「자금세탁방지(AML) 워크숍」을 개최할 계획
 - 동 워크숍은 금융회사의 AML 업무 이행수준 제고를 위해 '1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,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및 감사 업무 실무자 약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
- 이번 워크숍은 최근 민생 금융범죄·금융거래의 디지털화 등 새로운 자금세탁위험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실질적인 AML 업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서
 - 업권별 주요 AML 업무 운영 및 개선사례를 발표하는 등 금융회사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하여 현장 업무수행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,
 - 온라인(Zoom) 방식도 병행하여 현장 워크숍 참여가 어려운 소규모 금융회사의 자발적 AML 역량 제고 노력을 지원할 예정

2025년 자금세탁방지 워크숍 개요

구 분	2.24.(월)	2.25.(화)	2.26.(수)	2.27.(목)		2.28.(금)	
대 상	은행	증권	여전	전자금융	생·손보	저축은행	대부P2P· 소규모 전자금융 등
시 간	14:00~ 15:30	14:00~ 15:30	14:00~ 15:30	10:00~ 11:30	15:00~ 16:30	14:00~ 15:30	10:00~ 11:30
장 소	은행 연합회	금융투자 협회	여신금융 협회	서울국제 금융오피스	생명보험 교육문화 센터	저축은행 중앙회	온라인* (Zoom)
주 요 내 용	- (금감원) 최근 검사결과 주요 지적사례 및 리스크 요인, 글로벌 규제동향 - (금융회사) 업권별 주요 AML 업무 운영 및 개선사례 발표						

* 현장 워크숍 참여가 어려운 소규모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워크숍 실시

1. 최근 검사결과 주요 지적사례 및 당부사항

- 금융감독원은 최근 검사결과 주요 지적사례, 자금세탁 관련 리스크 요인, 글로벌 규제동향 등을 안내하고,
 - 금융회사별 자금세탁 위험수준에 상응하는 거래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위험기반(RBA*) AML 업무역량 제고에 힘써줄 것을 당부
- * Risk-Based Approach : 금융권역·금융회사·고객·상품·업무 등에 내재된 자금세탁위험을 식별·평가하여 부문별 위험수준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
- 특히 보이스피싱, 청소년 대상 도박·마약 등 민생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자금세탁 위험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,
 - AML·소비자보호 부서 간 신속한 금융범죄 관련 정보 공유를 통해 고객위험평가 및 의심거래보고 등에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

2. 금융회사의 주요 AML 업무 운영 및 개선사례

- 금융회사는 새로운 자금세탁위험에 대응한 효과적인 AML 체계 구축 등 주요 AML 업무 운영 및 개선사례를 발표
 - 로봇프로세스자동화(RPA)를 활용한 고객확인 정보 입력 오류 방지 등 자체적인 취약점 개선 노력과 더불어
 - 빅데이터에 기반한 의심스러운 거래 테마점검 등 금융현장에서 축적된 AML 업무수행 경험과 노하우 등을 공유

[주요 AML 업무 운영 및 개선사례]

- **(디지털 기술 기반 AML 업무 자동화)** 로봇프로세스자동화(RPA)를 도입하여 고객확인 정보의 시스템 입력 오류를 방지하고, 머신러닝을 통해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을 정교화
- **(빅데이터 기반 테마점검)** 빅데이터에 기반한 의심스러운 거래 테마점검을 실시하여 자금세탁위험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고, 점검결과를 AML 업무에 반영
- **(AML 교육품질 향상)** 이사회 현장교육 실시, AML 퀴즈 및 게임 등 직원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, AML 전문자격 취득 활성화 등 AML 교육 내실화

- 이번 참여형 워크숍을 통해 금융회사 AML 업무 담당자가 효과적인 업무수행 노하우 등을 상호 공유함에 따라
 - 업권별·회사별 금융거래 특성에 따른 자금세탁위험을 금융회사가 자체 점검하고 고위험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업무 개선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
-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준법감시인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업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면서,
 - 금융회사 스스로 자금세탁 위험수준에 상응하는 AML 업무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,
 - AML 시스템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민생 금융범죄 등에 대한 금융회사의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유도할 계획